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도 身土不二 바람이 일기를’

## -컴퓨터를 이용한 최적배합 패키지 개발-

정영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세계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각종 보호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에 대해서는 무분별 하리만큼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외국업체들이 개방을 앞둔 국내 농·축·수산물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본격 상륙에 앞서 기다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편 외국의 기업농이나 전업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 농가는 요즘 농산물수입개방에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이미 십수년 전부터 연간 10억불 규모의 사료곡물이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1977년 대한제당 사료사업부의 홍성택 과장(미원사료이사)과 유택생 씨(미국에서 오피상경영)가 CYBER에서 OPTIMA를 이용하여 사료배합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갖는 모델설정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단일제품배합을 위한 모델 설정만을 위하여 전산실내는 물론 대학의 관련 교수들과도 많은 협의를 하였으나 이론과 실제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어느 회사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10만불 규모의 외국 패키지를 구입사용하고 있었으나 실제 사용과정에서 단위의 차이로 애를 먹고 있었으며 이를 수정하는 데만 4개월 이상이 소요되었고 답을 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담자 부재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단일제품의 배합은 해결하였으나 복수제품의 배합은 모델링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LP 패키지가 OPTIMA에서 APEX로 바뀌게 되었다. 전산실에서

보유하고 있던 패키지는 LP범용 패키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쓰기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다행히 성기수 박사님의 배려로 기본연구과제로 채택되어 PC에서 값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때 많은 기능(parametric 분석, 잠재가격 등)을 추가하여 업계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 10여개 회사에서 사용됨으로 50만 불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와 1500만불 이상의 생산성향상 효과를 보게 되었다.

당시 사료업계에서는 전산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사료배합을 토대로 생산·판매·재고·회계관리를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FEMIS라는 패키지를 개발하여 대한사료, 동서농산, 제일사료 등에 공급하였다.

전산화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농축산업계에 컴퓨터를 이용한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최초로 시도하였으나 연구비, 인력, 시간 등의 제약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루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다.

身土不二라고 했던가.

우리 농산물, 우리가 애용하자는 농업관계기관의 많은 표어와 프랭카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은 왜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까지 외국 것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 가지지 않는다.